**삼하2107 Note**

**Cross check 삼상1803, 삼상2016**

삼상1803.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혈약[베리트:바라(고기)에서 유래,자르다,조각들,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,계약,동맹연합,연맹,약조: 창1510 참조]을 맺었으니, 이는 저가 그를 저 자신의 혼(魂)과 같이 사랑하였음이라.

삼상1804. 그리고 요나단이 저 위에 있던 겉옷[메일:의복,(위에나 외부의)겉옷,상의,외투]을 저 자신에게서 벗겨, 심지어 저의 검과 저의 활과 저의 혁대에 이르기까지, 그것과 저의 옷[마드:규모,높이,측정단위,(칫수를 잰)옷,융단,흉배,옷,의복,판단,측정]들을 다윗에게 주니라,

삼상2015. 너는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네 친절함(헤쎄드)을 잘라내지 말지니라, 그러니라, 여호와께서 다윗의 적들을, 땅의 지면으로부터 낱낱의 자를 잘라내신 때에도, 너는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네 친절함을 잘라내지 말지니라,

삼상2016.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(혈약을) 맺으니라, 말하되, 여호와로 심지어 다윗의 적들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하라,

삼상2017. 그리고 그가 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, 요나단이 다윗으로 다시 맹세하게[솨바:완전하다,일곱번 말하다,맹세하다,(맹세 서약함으로써)간청하다,~에게 임무를 가하다,실컷 먹이다,서약하다,엄중하게,맹세하게 하다] 불러일으켰으니, 이는 그가 그 자신의 혼(魂)을 사랑하듯이, 그가 저를 사랑하였음이라,

삼상2041. 그리고 소년이 간 즉시,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서, 그의 얼굴을 땅에로 떨어뜨리고, 그 자신을 세번 굽히니라,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, 다윗이 웃돌(가달:크게 되다,크게 만들다,나아가다,자랑하다,기르다,초과하다,우수함,큰,자라나다,증가하다,올리다,확대하다,양육하다,진전시키다,거만하게,망대) 때까지 서로 우니라,

삼상2042.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라, 우리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, 평온하게 가라, 말하되,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, 또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!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니라, 그리고 요나단은 성(城)으로 들어가니라,

삼상2318. 그리고 그들 둘이 여호와 앞에서 혈약[베리트:바라(고기)에서 유래,자르다,조각들,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,계약,동맹연합,연맹,약조: 창1510 참조]을 맺으니라, 그리고 다윗은 숲에서 머물고, 요나단은 그의 집으로 가니라,